

여순특별법 시행 지침이 '여순범국민연대' 출범

진상규명·명예회복 절차 감시

각계 전문가... 서울 등 전국조직

내일 순천만생태공원서 창립총회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 단위의 '여순10·19범국민연대'가 창립식을 갖고 출범할 예정이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여순범국민연대) 창립 준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순천만생태문화교육

원에서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범식은 1부 창립선언문 채택 등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기념강연회가 열린다.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가 '8·15해방과 10·19여순항쟁 너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여순사건의 배경을 해방정국에서부터 찾아가는 강연을 한다.

여순범국민연대는 16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한 김충조 전 국회의원, 조정래 소설가, 백승중 역사학자,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전 사무

총장, 이재봉 평화학자,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양동운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등이 활동할 예정이다.

출범 이후에도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국 단위의 각계 전문가들을 영입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여순범국민연대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왜곡된 여순10·19 역사가 올바르게 규명되고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지역과 이념을 넘어 여순항쟁 유족들과 함께 전국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들과 연대를 힘을 결집하고자 여순범국민연대의 출범

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범국민연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시행령 및 전라남도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검토된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9일 출범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 3단계에 따라 전남 동부권 공동대표단 등 50명 이하의 참석 수준에서 열린다. /여순=김창화 기자 chkim@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한빛원전 2800만원 지원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는 최근 한빛원전 홍보관에서 '2021년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지원사업'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13세 미만) 대상 시설의 통학버스는 신고 의무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안전 구조 및 장치(어린이 보호 표지, 하차 확인 장치, 보호자 동승 표지판 등)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리브펀드'로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시설 등 9곳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사업비로 2800만여원을 지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아람이지역아동센터 정은미 센터장은 "한빛원전의 지원으로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됐다"며 한빛원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한빛원전 이명현 지역협력부장은 "직원들의 소중한 성금인 리브펀드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곡성주민 1천여명, 섬진강 수해 분쟁조정 신청

790억원 피해보상 청구

곡성군 주민 1000여명이 2020년 발생한 섬진강·보성강 홍수피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섬진강 유역 수해 피해 곡성대책위원회'는 17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피해보상을 위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인원은 1천266명으로, 피해 평가액 823억 7천여만원 중 재난지원금 수령액(33억4천여만원)을 제외한 790억3천여만원을 보상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도, 곡성군 등을 적시했다.

수해 피해 곡성대책위 측은 "환경분쟁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피해민들에 최소한의 위로와 농민들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의 정책보험과 재난지원금 등을 조정 비율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이는 담관리 운영부실에 의한 인자에 대해 사실상 구상권을 피해 주민에게 덧씌우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홍수통제소 복원, 섬진강 유역환경정신 시설 등 섬진강 유역 물관리를 총괄할 책임 있는 행정 대안을 마련하라"며 "가중되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섬진강 유역을 관할하는 독립된 환경정신 시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에는 구례군 수해 피해 주민들이 환경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해남시네마' 지역문화 성장 거점 자리매김

개관 한달만에 5000여명 찾아

전국 작은 영화관 중 최다 관람

해남군의 작은 영화관 '해남시네마' <사진>가 지역문화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7월13일 개관한 해남시네마가 한 달 동안 최신 개봉영화 13편을 상영, 5000여명의 관람객이 찾았다고 밝혔다.

전국의 작은 영화관 중에서도 최다 관람객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여파로 타지역 여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군민들의 새로운 문화여가공간으로 떠오르며,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영화관 이용이 줄을 잇고 있다.

해남시네마는 하루 10회 중 애니메이션 2회, 일반영화 8회 등으로 편성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영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관람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에는 예술·독립영화를 상영하는 '씨네 브런치' 행사를 진행, 8월에는 음악영화 '플레이'



를 상영하고 있다.

씨네 브런치 영화 관람객에 한해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30여 년만에 해남에 영화관이 개관하면서 군민들의 문화생활향유의 여건이 한층 개선되어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안전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안내 요원을 보강해 방역 수칙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화순 연둔리 숲정이 관광 더 편리해진다

20억 들여 내년 5월까지 정비

주차장 신설·경관 조명 개선

화순8경 중 하나인 연둔리 숲정이 <사진>가 새롭게 단장된다.

화순군은 동북면에 위치한 연둔리 숲정이 주변 정비사업을 내년 5월까지 진행해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지난 2019년 전남도 관광자원 개발 신규 사업에 선정, 추진하게 됐다.

군은 최근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실제 설계 용역을 완료했다.

군은 정비 사업을 통해 마을 진입로 등에 주차된 관광차 차량으로 겪고 있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쾌적한 주차장을 설치한다.

또 산책로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경관 조명을 개선해 색다른 야경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전남도 기념물 제237호로 지정된 연둔리 숲정이는 1500년대 마을이 형성되면서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림이다. 수령 4~500년 된 왕버들 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등 230여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인근 화순적벽, 김삿갑 종명지 등과 연계한 설렘화순 버스투어의 주요 관광지로 일 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다시 찾는 힐링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해풍 맞아 더 탱글탱글

완도 해변포도 본격 출하

완도군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변포도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하우스 포도는 7월 상순 수확해 현재 kg당 1만1000원에 팔리고 있으며 노지 포도는 18일부터 판매 예정이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47t이다.

해변 포도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안가에서 재배돼 해풍을 맞고 자라 알이 탱글탱글하고 당도가 높아 해마다 많은 소비자가 많이 찾고 있다.

타지역 포도는 당도가 평균 15브릭스(Brix) 정도 되는데 완도 해변 포도는 15~17브릭스다.

청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부터 가지 포도라고 불리는 블랙 스파이어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해변 포도는 택배 주문이나 관내 마트를 이용해 구매하거나 완도군 군외면 해안 도로에서 당일 수확한 포도를 살 수 있다.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품질의 완도 자연그대로 해변 포도가 재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샤인머스켓 등 인기 있는 품종 생산량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